

## 2022년 2월 19일 “예수님의 비유(29)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눅 13:6-9)

오늘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비유들을 살피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있을 마지막 심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판은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스라엘의 현재적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 [1] 하나님의 다스림의 두 방식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사 45:7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1) 구원의 방식은 창조의 순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심판의 특징은 창조의 역방향으로 이끌어 혼돈/무질서/어둠을 경험케 하십니다.

마지막 재림 심판은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지만, 역사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심판은 피조계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적 내적인 혼돈/무질서/어둠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목적은 ‘창조주에게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 전 무의미와 무가치한 상태에서 창조주께로 돌아가야만 창조의 목적인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현재적 심판은 모두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 [2] 무화과 나무의 비유

복음서 - 세개의 무화과 나무 비유: i. 마 24:32-35; ii. 마 21:18-22; iii. 눅 13:6-9(오늘 본문)

모두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경고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을 죽이기까지 자기 방식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백성들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앗시리아 침공), 남 유다의 바벨론 포로 등,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심 또한 부정하는 이스라엘을 중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지하여야 온세상을 향한 언약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영적 교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눅 13:1-5 참고).

현재에도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당하는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악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전 7:15, 전 8:14 읽음)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의인인가에 있습니다. 의인이란 잘못하고 부족해도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꺼이 주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나쁜 사건들이 모두 심판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겐 거룩한 영적 과제로 승화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렸을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 뜻을 계속 거역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난 속에서 혼돈/무질서/어둠을 경험했지만 주께로 돌아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적 과제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택을 입고 어떤 고난과 고생이 있더라도 주께 돌아가 영적 과제로 승화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심판과 역사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심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